

매주 토요일 무등산서 전통의 하모니 울려 퍼진다

광주문화재단 '2025 토요 상설공연' 라인업 공개

광주문화재단의 대표 콘텐츠 '토요 상설공연'이 14주년을 맞은 올해도 알찬 라인업으로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 '2025 토요 상설공연'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그간 전통 공연예술 활성화, 광주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 온 사업은 올해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을 맞이한다.

오는 12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개막하는 토요 상설공연은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24회에 걸쳐 주차별 주제형 공연으로 진행된다. 지난달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예술가(단체)의 판소리·산조, 국악창작, 연희·무용 17팀과 광주시 무형유산 전수자 7인의 초청 공연으로 매주 다양한 무대가 펼쳐질 전망이다.

매월 첫째 주에는 판소리·산조 공연이 진행된다. 기대희·김란희(5월3일), 조혜진·유서정(6월7일), 공현지·신선민(7월5일), 이연주·이선민(9월6일), 김맑음·김다혜(10월4일) 씨가 출연한다.

매월 둘째 주는 국악창작 공연으로 연

12일 전통문화관 서석당서 개막 오는 10월25일까지 총 24회 진행 판소리·국악창작·무용·가야금 등 참여형 연희놀이 프로그램 마련

우기희(4월12일), 화양연화(5월10일), 포르투나(6월14일), 모자이크(7월12일), 해화실내악단(9월13일), 떠돌이(10월11일)팀이 무대를 꾸민다.

매월 셋째 주에는 연희·무용 공연으로 창작연희국악단 훌릭(4월19일), 그리샤(5월17일),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6월21일), 바오무용단(8월23일), 전통연희그룹 자타공인(9월20일), 소리매너 나라(10월18일) 팀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어 매월 넷째·다섯째 주는 무형유산 공연으로 황승욱 가야금병창(4월26일), 문명자 가야금병창(5월26일), 이순자 춘향가(5월31일), 이영애 가야금병창(6월28일), 방성춘 동초제 춘향가(8월30일), 김선이 동초제 흥보가(9월27일), 최연자

강산제 심청가(10월25일)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너털마당 등에서 (사)전통연희놀이연구소와 함께하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5세기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담긴 다양한 연희를 현실에서 재현하고 광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체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2025 전통문화관 토요 상설공연'은 지난 2012년 첫선을 보인 뒤 14년간 전통문화관에서 열리며 시민들의 호응을 이끈 바 있다.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누적 관객수 18만명을 돌파했으며, '무등산을 배경으로 전통 한옥에서 즐기는 품격 있는 공연'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행사 운영을 위해 공연 포스터를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 현장에서도 디지털 배너를 통해 공연 프로그램 내용을 국문, 영문, 중문으로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공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무료로

진행되며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노희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고정 관객이 확보된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은 무등산 자락에 오면 꼭 봐야 하는 주

요 상설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도 매주 토요일 전통문화관을 찾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성악의 진수' 광주시립오페라단 '60 STARS' 성료

'지역 예술인 화합·축제의 장' 마련 오페라 해설 등 관객 호응 이끌어

지역 성악가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인 광주시립오페라단의 '60 STARS' 오페라 갈라 콘서트가 지난 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700여 좌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60 STARS'는 매년 '솔리스트 앙상블'의 합창을 중심으로 진행해 오던 무대에서 벗어나 참신한 기획으로 소프라노, 베이스, 메조소프라노, 테너 판타지를 비롯해 합창까지 성악의 진수를 볼 수 있었다. 이번 공연은 오페라와 세기의 명곡들로 구성됐으며 웅장한 하모니와 깊이 있는 해설이 어우러진 감동적인 공연이었다.

최철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에서 연주곡 레퍼토리의 배경과 감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관객들이 음악에 더욱 몰입하고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연주를 더욱 이해하기 쉽게 녹아 들어간 베이스와 메조소프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지난 5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60 STARS'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라노 판타지의 재치 있는 연기와 극적 표현으로 관객석에서는 웃음과 환호가 끊이지 않았다. 소프라노 판타지와 수려한 멜로디에 담긴 감동의 메시지와 테너 판타지의 화려한 고음으로 극장을 메우는 음성은 광주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오페라 가수들의 화려한 소리의 대향연이었다는 평가다.

공연에 참여한 호남신학대학교 임해철

교수는 "한 해에 한 번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광주를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화합의 장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각이 음악에 녹아들어 이번 무대가 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며 "광주방문의 해" 예술로 풍요로운 감동의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올해에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다양한 공연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찬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제5회 호남학산책 원고 공모전 개최

내달 2~9일 접수... 3개 부문 시상 대상 150·최우수상 100·우수상 50

한국학호남진흥원은 호남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제5회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호남학산책은 수신을 원하면 누구나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호남 지역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원을 소개받는 사업이다.

현재 1만1000여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민속의 재발견, 호남근대사문학, 문

화유산 기록과 현장, 한 폭의 그림 하나의 이야기, 고문서와 옛 편지, 항일의 성좌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원고 제공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호남의 문화·예술·역사·명소 등에 대한 수기나 칼럼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5월 2일부터 9일까지며, 이메일(kamjabong@hiks.or.kr) 또는 직접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의 홈페이지(https://

www.hik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상은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당선작은 '호남학산책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발송된다. 대상(1편)에 150만원, 최우수상(1편)에 100만원, 우수상(1편)에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홍영기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이번 호남학산책 원고공모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호남 지역의 풍요로운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아르플래닛' 정기연주회 공연 한 달 앞두고 매진

내달 3일 ACC 예술극장 극장2 네이버 예약 통해 대기예매 접수

창단 1년 차 신생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래닛'의 정기공연이 한 달을 남겨두고 매진돼 화제다.

8일 아르플래닛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개최하는 제1회 정기연주회가 공연까지 약 한 달을 남긴 시점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끌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아르플래닛이 앞으로 이어갈 정기 공연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무대로 리스트, 베토벤, 프로코피

예프, 쇼팽, 바흐·부조니, 슈만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해석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르플래닛 소속 광주·전남 출신 청년 피아니스트인 유예름, 이서영, 진다영, 김세연, 김민호, 최설희, 최해지, 최예정 등이 참여해 지역이 배출한 역량 있는 이들의 무대로 꾸며질 전망이다.

한편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아르플래닛의 공연은 지난달 4일 티켓 오픈 이후 약 한 달 만에 406석이 매진됐다. 예매를 놓친 관객들을 위한 대기예매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신청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서 펼쳐지는 성인 위한 과학 행사

25일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 22일까지 누리집서 선착순 90명 모집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25일 '꽃'을 주제로 한 '제11회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는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19+'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과학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꽃피는 봄이오면'이라는 부제로 봄꽃 음악 콘서트(밴드 '화려')와 함께하는 '플라워 다이닝' △이영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와 허재무 진행자가 함께하는 '우리의 삶과 담은 봄꽃 이야기' 토크 콘서트 △전문가와 함께 아름다운 나만의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플라워 클래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참여자 중 베스트 드레서, 행사 중 꽃과 함께 촬영한 멋진 사진 등을 선정해 특별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사이언스 나이트 페스티벌' 참여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에서 선착순 9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참가비는 2만원이며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